

대학생을 위한 정보 활용능력과 글쓰기 교육의 연계·협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nection/Cooperation of Information Literacy and Writing Instruction for Academic Students

한 만 성(Mahn-Soung Hahn)*

초 록

이 연구는 정보 활용능력 교육과 글쓰기 교육의 연계·협력의 이론과 실재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정보 활용능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구성과 관련된 통찰력을 얻고자 하였다. 우선 정보 활용능력이 가진 모호성과 다양한 개념을 통해 정보 활용능력 교육 또한 일률적인 지침이나 표준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밝혔다. 또 다양한 정보 활용능력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글쓰기와의 연관성을 비중 있게 다룬 이론적 배경을 살펴 본 뒤, 실제로 글쓰기 교육을 정보 활용능력 교육과 연계하여 협력적으로 실행한 미국 유타 대학과 캐나다 윈저 대학의 사례 연구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상황에서 정보 활용능력 교육과 글쓰기 교육의 연계 또는 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looks into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terconnections that exist between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ILI) and writing instruction to gain further insights related to the development and forming of Korean ILI program. First of all, as evidenced by the ambiguity and various concepts that are possessed by the information literacy, this paper clearly indicates that the ILI cannot be achieved with a standardized set of guidelines across the board. And then, after investigating into the theories which deal mainly with the relativity to writing amongst the various ILI programs, this paper introduces precedents of Utah University, USA and Windsor University, Canada which have carried out writing instruction by actually connecting it with the ILI. Finally, this paper sounds out the possibility of connections or cooperation between writing and ILI within the scope of the Korean situation and suggests alternatives.

키워드: 정보 활용능력, 정보 활용능력 교육, 글쓰기, 대학도서관, 수사학
Information Literacy,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Writing, Academic Libraries,
Rhetoric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시간강사(biblioinfo@jbnu.ac.kr)
논문접수일자 : 2011년 2월 18일 논문심사일자 : 2011년 2월 28일 게재확정일자 : 2011년 3월 8일

1. 들어가기

2010년 2학기 '도서관 정보자료 이용법' 강의 첫 시간에 학생들로 하여금 이 과목을 수강한 동기 및 학습 목표를 적어내도록 하였다. 그들이 써낸 학습 목표 중 '작문 능력 신장(리포트, 논문, 글 차분하게 쓰기 등)' 관련 내용이 예상 밖으로 많았다는 경험으로부터 이 연구는 출발하였다.

'도서관 정보자료 이용법'은 도서관 이용자 교육에 연원을 두고 있지만 최근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 교육 분야에서 이론적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는 정보 활용능력과 그 교육의 자장 안에 들어가는 교양과목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위한 정보 활용능력 교육(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¹⁾의 하나로써 글쓰기 관련 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정보 활용능력 교육의 기원을 사서들의 대학 도서관 교육에서 찾을 경우 그 시점은 1870~80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Grassian and Kaplowitz 2009, 10).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서강대학교에서 개설한 대학도서관 이용자 교육 강의를 그 시초로 알려져 있다(이창수, 김신영 2003, 237).

한국의 도서관 이용자 교육이 서지 교육의 개념에서 정보 활용능력 교육의 개념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시점에 이르렀다(장덕현, 최고운 2008)면, 이제는 정보 활용능력 교육의 세부적인 항목 구성을 포함하는 교육 과정에 대한 폭

넓고 다양한 논의와 여러 가지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자의 가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글쓰기 관련 교육이 정보 활용능력 교육과 어떻게 연관을 맺는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실제로 두 가지 교육의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진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정보 활용능력 교육 항목 개발 및 구성과 관련된 통찰력을 얻고자 한다. 한국의 정보 활용능력 교육이 컴퓨터 활용능력(Computer Literacy)만의 강조를 넘어서서 비판적 사고와 윤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양의 하나로서 충분한 역할을 담당하려면, 과정 중심의 글쓰기 연습을 비중 있게 다루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먼저 정보 활용능력의 개념을 둘러싼 담론들을 검토해 보고, 관련 선행 연구를 개괄하여 교육 항목 구성의 다양성을 확인해 본다. 이어서 현재 이미 정보 활용능력 교육 항목 중 대개 포함되어 있는 글쓰기 관련 영역을 개괄하면서 현행 교육 내용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미국 유타 대학과 캐나다 윈저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 활용능력과 글쓰기 교육의 연계와 협력 사례를 정리해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적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정보 활용능력의 개념

'정보 활용능력'의 원어인 'Information Literacy'

1) 많은 연구자들이 '정보활용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 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이 있고 나서 그 교육이 있다는 논의 전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정보 활용능력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정보활용교육'의 경우 '정보 활용능력'과의 관련성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는 1974년에 Paul G. Zurkowski가 두 단어를 조합하여 처음 사용했다고 한다(Grassian and Kaplowitz 2009, 3).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미국 도서관협회의 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의에 따라, 정보 활용능력을 ‘언제 정보가 필요할지를 알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ALA 1989)’ 정도로 단순하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학계와 도서관 현장 사정은 좀 더 복잡하게 보인다. 본 장에서는 정보 활용능력 개념이 가진 모호성을 확인해 보고, 이어서 국내 관련 연구를 개괄한 다음, 정보 활용능력 교육 항목의 구성이 혼돈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자 한다.

2.1 개념의 모호성

‘Literacy’라는 단어를 보통 ‘읽고 쓰는 능력’으로 옮기기 때문에, ‘Information Literacy’ 안에 이미 읽고 쓰기의 의미가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정보를 읽어내고 쓸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런데 문맹의 깨우침을 통한 차별 없는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18세기 서양 계몽주의 전통의 근대성을 떠올리게 하는 용어가 ‘literacy’라면, ‘information’은 보다 엘리트 중심적이며 통제와 측정이 가능한 범위 안에 대상을 두고자 하는 과학이 강조된 탈근대적인 이미지에 보다 가까운 듯하다.

Christine Pawley는 이 같은 두 단어의 결합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한 세 가지 딜레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Pawley 2003, 427-428). ‘대중주의와 엘리트주의 사이의 딜레마’, ‘불편부당성과 특정 주의 지지 사이의

딜레마’, ‘자유와 검열 사이의 딜레마’가 그것이다. 각 단어가 갖고 있는 함의가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갖기 때문에 합쳐진 용어도 그로 인한 긴장감을 유지하게 된다.

즉 ‘Literacy’를 강조할 경우에는 사서가 어떤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편견도 갖지 않고 소수자를 포함하는 대중 일반에게 공평한 정보의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를 더 가질 수 있다. 한편 ‘Information’에 비중을 더 둔다면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의 표준이나 기준이 강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 웨스턴 워싱턴 대학 도서관의 사서로 일하면서 발표한 논문에서 Jeff Purdue는 ‘정보 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서를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면서, 사서들이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이해하도록 하겠느냐고’ 질문한 바 있다(Purdue 2003, 653).

또한 정보 활용능력을 20년 가까이 연구해 온 학자도 최근 내한하여 발표한 논문에서 정보 활용능력에는 다양한 개념 정의, 여러 가지 모델과 관점들이 존재한다며 논문 제목을 정보 활용능력의 수수께끼라 붙이기도 하였다(Todd 2010). 한국의 상황도 서로 다른 번역어로 ‘information literacy’에 접근하고 있는 등 그 이해에 완전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²⁾

이 밖에도 정보기술에 중점을 둔다든지, 방법론으로서 이해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개념의 혼란은 정보 활용능력 교육의 실제에서 난맥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Todd는 P. Kerr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정보 활용능력의 어떤

개념도 대학도서관 현장에 일관되게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정보 활용능력에 대한 믿음과 대학도서관 현장 업무의 실제 적용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다(Kerr 2010; Todd 2010, 143에서 재인용).

2.2 국내 선행연구

유소영은 '정보교과목과 타 교과목의 통합적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A Study Integrated Teaching/Learning Information Literacy Subject and the Other School Subjects)'에서 문헌정보학 교육 과정 안에 타 교과목의 통합적 교수/학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유소영 1997).

고영만은 2001년 논문에서는 '정보소양(情報素養)'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하였다(고영만 2001)가, 그 후 'Information Literacy'에 대한 연구 성과를 묶어 『정보문해론』을 발표하였고(2005년), 정보 활용능력의 평가와 윤리 문제를 추가하고 보완하여 개정판을 내었다(고영만 2010).

강혜영은 정보 활용능력의 정의를 다양한 관점에서 정리하면서 미국, 호주, 영국의 정보 활용능력 교육 과정을 비교·분석한 바 있으며(강혜영 2002), 이현실은 대학도서관에서 정보 활용능력 교육을 담당하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필요한 내용과 항목을 조사하였다(이현실 2004). 또 그녀는 정보 활용능력에 대한 한

국 대학생들의 인식도를 최상기와 함께 설문 조사하여 발표하기도 하였다(이현실, 최상기 2005).

이창수와 김신영은 정보 활용능력 교육 과정의 개발에는 대학 구성원간의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교수와 사서 사이의 협력뿐만 아니라 대학 행정 당국의 인식과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를 하였다(이창수, 김신영 2003).

진혜영과 황인영은 국내 8개 대학의 정보 활용능력 교육 현황을 강의계획서를 중심으로 조사한 뒤 미국 대학 및 연구도서관 협회(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y: ACRL)의 기준과 비교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진혜영, 황인영 2003), 최상희와 박명규는 정보 활용능력을 다루는 교양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해당 교육 내용을 어떻게 수용하였는지에 대해 연구하여 향후 정보 활용능력 교육 내용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최상희, 박명규 2005).

김성은과 이명희는 국외 5개 대학과 국내 23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정보 활용능력 관련 과목의 교육 내용을 분석한 뒤 새로운 교수 학습 모형을 개발하였고(김성은, 이명희 2006), 장덕현과 최고운은 대학 도서관이 주체가 되는 정보 활용능력 교육의 모형을 제안한 연구를 하였다(장덕현, 최고운 2008).

이 밖에도 각 대학에서 정보 활용능력 관련 교양과목의 교재들을 많이 출간해 오고 있는 가운데 『정보조사와 글쓰기』(이상렬 2010)는

2) 대표적으로 'information literacy'에 대한 연구를 선구적으로 행한 바 있는 고영만은 '정보 문해(情報文解)'라는 용어를 사용해 오고 있다. 한편, 2010년 개정판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서는 'information literacy'를 '정보활용능력'이라고 옮기고, 다음과 같이 풀이해 놓고 있다: 사용자가 정보요구를 인식하고, 찾아내고, 평가하고, 그리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의 자원이나 도구에 관한 지식과 기법, 혹은 그 지식과 기법에 대한 능력. 도서관 장서 구성의 이해, 연구기법에 대한 지식, 정보의 평가 및 효과적 사용, 정보기반기술의 이해 및 이러한 기술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 등이 포함된다.

글쓰기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많은 정보 활용 능력 관련 교재라고 볼 수 있다.

2.3 교육 항목 설정의 혼돈

국내 연구자들이 정보 활용능력 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서 해 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교육 항목 설정의 혼돈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국내 관련 연구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표적인 지침으로 미국대학 및 연구도서관 협회에서 2000년에 발표한 ‘고등교육 정보 활용능력 표준’³⁾이 있다(강혜영 2002; 진혜영, 황인영 2003; 이현실, 최상기 2005; 최상희, 박명규 2005; 김성은, 이명희 2006; 장덕현, 최고운 2008).

그러나 그 내용이 망라적이고 추상적인 측면이 많아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앞(2.1)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보 활용능력의 어떠한 개념도 도서관 현장에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미국의 숙련된 대학도서관 사서조차 자신은 경험 많은 연구자이긴 하지만 제시된 표준 하나하나를 모두 자신 있게 충족할 만한 능력은 없다고 말하면서 일률적인 지침을 부정

적인 시각으로 평가하고 있다(Purdue 2003, 654).

한편 21세기에 들어와서 정보 활용능력 교육 지침에 영향을 준 만한 두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국제 정보 활용능력 포럼(National Forum on Information Literacy: NFIL)’이 주도하여 발의한 ‘프라하 선언(2003)’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IFLA)과 유네스코, 그리고 ‘국제 정보 활용능력 포럼’이 함께 발표한 ‘알렉산드리아 헌장(2005)’이다.

‘정보지식인 사회를 향하여(Towards an Information Literate Society)’라는 제목의 프라하 선언은 정보 활용능력을 “자신의 정보 요구와 관심에 대한 지식을 아우르며, 자신에게 닥친 문제나 이슈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를 확인하고, 찾고, 평가하고, 조직하여 효율적으로 창조하고 사용하며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⁴⁾라고 설명한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에서 제시한 ‘정보 활용 능력과 평생학습에 관한 알렉산드리아 헌장’은 정보 활용능력과 평생학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정부와 정부 간 기구의 협력 활동을 강조하면서(Todd 2010, 133), “정보 활용능력은 평생학습의 핵심이다. 모든

3) ACRL의 고등교육 정보 활용능력 표준은 크게 다섯 가지 지침으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각 지침마다 3~7가지의 세부 수행목표가 달려 있다. 다섯 가지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은 필요한 정보의 특성과 범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2. 대학생은 필요한 정보에 대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 대학생은 정보 및 관련 자료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선택된 정보를 자기 자신의 지식 토대에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4. 대학생은 개인 또는 조직체의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대학생은 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경제적, 법적, 사회적 문제점을 이해하여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적합하게 사용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영만 2010, 95-97). 원문은 국제도서관협회연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ited 2011.2]. <www.ala.org/ala/acrl/acrlstandards/informationliteracycompetency.htm>.

4) 원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cited 2011.2.9]. <<https://docs.google.com/fileview?id=0B3SNP9j56rIMjM4OGJiNWItM2E4Ni00Yjc0LWJjYTctZDMxZTtVIOGYyMDAy&hl=en>>.

직업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교육적 목표에 맞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평가하고 사용하고 창조하는 힘을 부여하는 것이 정보 활용능력이다. 또한 이것은 디지털 세상에서 인간의 기본 권리이자 모든 국가의 사회적 통합을 장려한다⁵⁾라고 선언한다.

이렇듯 정보 활용능력에서 '정보' 쪽에 의미를 더 두는 표준과 지침을 마련하려는 국제적인 시도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정보 활용능력의 일상생활성, 평생교육의 개념 등이 혼재되면서 교육 항목의 선택과 구성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게다가 정보 활용능력을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양(Liberal Arts)으로 이해한 관점(Shapiro and Hughes 1996)을 더한다면 또 다른 심도 깊은 논의도 가능할 것이다.

교육 항목 설정의 혼돈상은, 정보 활용능력 개념의 모호성과 상호작용하면서, 오히려 다양한 영역의 전공자들에게 정보 활용능력을 향한 접근점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 활용능력 담론을 풍성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고 있다. 바로 글쓰기 강사이자 수사학자(修辭學者)인 Rolf Norgarrd의 논문도 이러한 맥락에서 발표되었다.

3. 정보 활용능력 교육과 글쓰기 교육의 연계/협력

3.1 기존 교육 항목

현재 국내 정보 활용능력 교육 항목 중에서

는 주로 '학술 논문 작성법'이나 '표절과 정보 윤리' 등이 글쓰기 교육과 직접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3.1에서는 글쓰기와 수사학을 전공한 학자가 글쓰기의 맥락에서 정보 활용능력을 설명한 논문을 위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현재 정보 활용능력 교육이 글쓰기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짚어 보고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정보 활용능력과 글쓰기의 상호협력적 교육을 이루어 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려 한다.

3.1.1 연구 논문 작성

대학생들은 도서관이라는 단어로부터 리포트 과제나 연구 논문 등을 연상할 수 있다. 기존의 도서관 이용 교육을 포함하는 정보 활용능력 교육에서는 '지적인 탐구가 이루어지는 과정' 보다는 각종 참고 정보원을 포함하여 인용 형식을 갖춘 최종 결과물을 강조한다. 이 점이 바로 올바른 글쓰기 교육의 방해 요소가 되고 있으며 참된 정보 활용능력 교육의 목적과도 어긋난다는 것이 Norgaard의 주장이다(Norgaard 2004, 222).

이러한 교수법의 기원에는 문제에 대한 탐구가 아닌 교수가 제시한 토픽에 대한 정보 나열식 리포트 과제가 자리한다. 학생들의 과제는 '잘라내기'와 '붙이기'로 이루어진 내용에다가 약간의 형식만 갖춘 서지사항이 덧붙여진 불성실한 리포트가 대부분이다. 서가를 몇 시간 서성이다가, 컴퓨터에서 전자논문을 검색해 내고, 인터넷을 헤매다가 어마어마한 정보량에 압도당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만을 정리

5) 원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cited 2011.2.9]. <www.ifla.org/III/wsis/BeaconInfSoc.html>.

하다 말 뿐이지 진정한 자신의 탐구 여지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Norgaard 2004, 222-223).

생각하기와 글쓰기가 따로 놀며, 여러 주장들 사이의 참된 대화 가운데에서 인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육 환경이 지속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정보 활용능력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지식은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지 정보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 진정한 문제의식과 인지적 부조화로부터 자극받은 탐구로부터 지식이 생겨난다는 것, 또 그 지식은 외형을 고칠 뿐인 형식상의 편집이 아니라 거듭되는 고치기와 다듬기를 통해서 자라난다는 전제하에서 연구 논문 작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글쓰기 강사들은 정보 활용능력 교육 강사·사서들의 훌륭한 협력자가 될 수 있다(Norgaard 2004, 222).

3.1.2 표절과 정보 윤리

표절 문제는 정보 활용능력의 교육 항목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만큼 주목받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지적·사회적·윤리적 논점이 얽혀 있는 표절 문제는 윤리적 비판의 차원을 넘어서서 행정적 처벌과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포스너 2009, 7). 표절 문제를 포함하여 넓은 의미에서 정보의 윤리적 사용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공유해야 할 문제가 되었으며, 학문과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닌 학생들을 포함하여 모든 세대와 모든 직업의 당사자들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되었다(고영만 2010, 174).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정보 윤리와 관련하여 인용법을 단순히 표절을 피하는 수단으로만 인식하기 쉬운 교육을 받는다. 인용과 참조가 학문 공동체의 소속감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으며, 텍스트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독자들에게 배경과 문헌을 알려주는 기능도 있으며, 자신의 학술 능력이나 학술적 정체성을 제시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크루제 2009, 75-76)는 종합적인 깨달음은 놓쳐 버린 채 오로지 표절 방지 수단으로 인식한 인용 형식 습득에만 급급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야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인필드 플레이 규칙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쓰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Hunt 2002; Norgaard 2004, 224에서 재인용).

따라서 표절을 피할 수 있는 올바른 글쓰기 지침⁶⁾이 정보 활용능력 교육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과제를 설계하고 작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이러한 지침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과정에 따라 정보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평가할 수 있는 능력, 학생들 스스로 읽으며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과제에 직접 끌어들이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료인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탐구와 정보 활용능력이 글쓰기 과정과 글쓰기 교육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를 하면서 Norgaard는 수사학 연습을 포함하는 글쓰기 교육이 정보 활용능력 교육과 상호 협력적으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6) 포스너가 쓰고 정해룡이 옮긴 『표절의 문화와 글쓰기의 윤리』의 보론으로 담겨 있는(139-215) “윤리적 글쓰기의 가이드라인” 같은 자료가 좋은 참조가 될 수 있겠다.

정보 활용능력이 생겨남을 설명하고 있다. 즉 절대적인 기준에 따른 리터러시가 아닌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리터러시(A Situated Literacy)', 결과만을 강조하는 '리터러시'가 아닌 '과정에 중점을 두는 리터러시(A Process-Oriented Literacy)', 고전 수사학에서 말하는 수사적 기술, 즉 문제의 발견(혹은 착상), 배열, 표현, 암기, 발표로 이어지는 단계와의 연관을 통한 '사회·문화적으로 적합한 리터러시'라는 차별성 있는 정보 활용능력이 바로 글쓰기의 이론과 실재를 통해 길러진다는 것이다(Norgarrd 2003).

그가 주장하는 대로 정보 활용능력이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리터러시', '과정에 중점을 두는 리터러시', '사회·문화적으로 적합한 리터러시'가 되기 위해서는 글쓰기 교육과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정보 활용능력 없는 글쓰기는 맹목이고, 글쓰기 없는 정보 활용능력은 공허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보 활용능력 교육에서 글쓰기 교육과의 연계·협력을 모범적으로 구현한 사례를 미국의 유타 대학과 캐나다의 윈저 대학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3.2 미국 유타 대학의 사례(Bowles-Terry, Davis and Holliday 2010)

3.2.1 문제 중심 학습의 적용

미국 유타 주립 대학의 도서관 사서들인 Melissa Bowles-Terry, Erin Davis, Wendy Holliday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의식을 갖고 정보 활용능력과 글쓰기 교육의 연계·협력을 모색하였다. 그들은 '카피 & 페이스트' 혹은 '잘라내기와 붙이기'로 요약할 수 있는 학생들의 불성실한

학습 태도를 기술의 발전 탓으로 돌리기보다 정보 활용능력 교육 이론과 실제의 괴리에서 원인의 하나를 발견한다. 즉 많은 정보 활용능력 강사·사서와 글쓰기 강사들이 여전히 1950, 60년대에 주도적이었던 교육심리학 이론인 행동주의의 관점에서 정보 활용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라는 시각이다.

행동주의는 인간의 행동이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인간 역시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행동적·수량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며 따라서 과학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본다(백영균 외 2010, 110). 따라서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는 "정확한" 과정이 존재하다는 가정에서 사서/강사가 그 법칙을 가르치며 법칙에 어긋나는 "틀린" 접근 과정은 배제된다. 이것은 "문장의 오류"를 찾아내는 글쓰기 교육과 같은 맥락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연속간행물을 찾기 이전에 사전과 같은 일반 참고도서를 먼저 찾아야 하는 규칙이 있다는 식의 접근이다(Bowles-Terry, Davis and Holliday 2010, 226).

유타 대학의 교육 사서들은 이러한 교육철학 대신에 구성주의 이론을 정보 활용능력 교육에 적용하기로 한다. 교육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구성주의란, 간단하게 말하면 지식을 객관적, 고정적, 절대적인 존재 영역으로 바라보지 않고 학습자가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맥락 속에서 스스로 학습해 나간다는 이론이다(이지현 외 2005, 123-124). 정보 탐색 과정에서도 기계적인 절차보다는 다양한 탐색 전략이 중시되며 이것은 반복적인 과정으로 개인에 따라 다르게 개념화된다. 따라서 학습의 무게 중심이 교수가 아닌 학습자로 옮겨간다.

이들은 구성주의 이론에 바탕을 둔 학습자 중심 교수 방법 중에서도 ‘문제 중심 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을 적용하여 유타 대학의 ‘글쓰기 정보 활용능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문제 중심 학습’은 간단히 말하자면, 학습의 출발점에 문제를 제시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해답을 찾도록 하고 교수자는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보조자나 촉진자 역할을 하는 교수 방법이다(최정임, 장경원 2010, 14-15).

3.2.2 글쓰기 정보 활용능력(Writing Information Literacy)

유타 주립 대학의 사서들은 2004년부터 학부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작문 수업에서 정보 활용능력과 글쓰기 학습 목표를 통합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 여름에는 앞(3.1)에서 살펴 본 Rolf Norgaard의 두 논문(Norgaard 2003, 2004)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유타 대학 사서들과 영어 글쓰기 강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여 앉아 새로운 교육 접근을 논의하였고, 이 결과를 “유타주립대학의 글쓰기 정보 활용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문서화하였다.⁷⁾

또 이들은 서로 협력하여 ‘글쓰기 정보 활용능력’의 학습 목표를 새로이 설정하였다. 좋은 질문을 만들어 내기, 다양한 정보원 찾기, 전통적인 기준(정확성 같은)뿐만이 아닌 글쓴이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합성과 가치에 따라서 정보 평가하기 등이 학습 목표 속에서 강조되었다.

수업의 실제에서는 정형화되고 정확한 최종 결과물을 요구하기보다는 의미를 형성해가고 지식을 넓혀 가는 과정을 강조하는 ‘문제 중심 학습’을 적용하였다. 이 수업은 세 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사서와 글쓰기 강사의 공동 수업으로 이루어졌다.

세션 1에서는 사서가 먼저 교육에 관한 선입견을 확인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개별적 믿음을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여학생들은 수학에 약하다”라는 믿음에 대하여 얼마나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보원을 제시하고 알려준다.

세션 2에서는 글쓰기 강사와 도서관 사서가 교육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사서는 테마의 기초, 주제 영역, 필요한 자료의 유형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모듈별로 문제를 만들어 내도록 도와준다. 사서와 글쓰기 강사는 모듈별로 다를 수 있을 정도의 주제에 문제를 할당한다.

세션 3에서 학생들은 도서관 컴퓨터를 이용하여 검색한다. 사서들은 모듈별로 학생들에게 할당된 문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들과, 그 문제에 대해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 필요가 있는지를 적어 내도록 한다. 사서는 논문 찾는 방법의 시범을 보인다. 학생들은 다시 모듈별로 모이고, 사서와 글쓰기 강사들은 각 모듈의 문제에 따라 유용한 검색 도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돕는다.

비록 이러한 학습 방법에 모든 학생들이 적

7) “Writing Information Literacy at USU”라는 이름으로 된 문서는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글쓰기 정보 활용능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재 학생들의 학습 행태와 우리가 추구하는 ‘글쓰기 정보 활용능력’과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가? 이러한 목표에 관련된 보다 넓은 목표와 이슈들은 무엇이 있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토론 내용을 2장으로 정리해 놓고 있다. [cited 2011.2.2]. <<http://library.usu.edu/instruct/writing-infolit.pdf>>.

응한 것은 아니고, 모든 강사들이 호응한 것도 아니었다. 어떤 학생들은 문제 자체보다는 점수를 얻기 위한 최종 결과물의 작성에 여전히 집중하였다. 또 일부 강사들은 문제 중심 접근 방식이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적인” 연구 논문을 쓰는 시간을 뺏는다고 불평하였으며, 도서관 사서의 역할은 정보를 찾는 데에만 있다는 강사들의 오래된 선입견 또한 순조로운 협력의 방해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재 중심의 전통적 수업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웹 자원의 체크리스트는 학생들이 사이트의 실질적인 내용이나 메시지보다는 ‘정보원, 권위, 최신성, 질, 인지도’ 등의 평가 기준에만 치중하게 한다는 지적이라든지, 교재 중심의 교육이 적합한 정보를 향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단선적인 접근만을 가르쳐 줄 뿐이라는 지적은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도 되새겨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도서관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온라인 강좌 교육은 정보를 적당하게, 잘 정돈된 검색 기법에 따라 이용자의 입맛에 맞도록 제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에서 정보는 만질 수 있는 양의 문제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Bowles-Terry, Davis and Holliday 2010, 229)는 통찰 또한 정보의 가치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추구하는 정보 활용능력의 교육에서 주목을 요한다.

3.3 캐나다 원저 대학의 사례

3.3.1 과정 중심 접근의 강조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있는 원저 대학의 정보 활용능력 교육 담당 사서인 Heidi Jacobs가

주도한 정보 활용능력과 글쓰기 교육의 연계/협력 프로그램은 ‘연구도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과정’이라는 단순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Jacobs and Jacobs 2009, 72). 효과적인 글쓰기가 그러한 것처럼, 효과적인 연구 또한 단 한 번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정, 재작업, 재검토, 그리고 무엇보다 반성이 몇 번씩 반복되는 과정이라는 이러한 관점은 Jeff Purdue, James K. Elmborg, Rolf Norgaard 등의 이론 작업에 바탕을 두고 있다(Jacobs 2008).

Purdue는 모든 글쓰기 과정은 잠정적인 과정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기 마련이지 결코 질서 정연하지 않으며, 연구 과정 또한 이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하였다(Purdue 2003, 655). Elmborg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연구 과정을 좀 더 넓은 글쓰기 과정의 맥락 안에서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정보 활용능력 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것은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Elmborg 2003, 72-73).

이보다 앞서 Kuhlthau는 교육심리학 분야의 구성주의 이론을 차용하여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과정 중심 접근을 소개한 바 있다(쿨싸우 2000; Kuhlthau 2004). 앞(3.2)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의 경험을 중시하는 구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교육에서는 학습자 개개인의 관심, 사회·문화·역사적 맥락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정해 놓은 하나의 고정된 결과로서의 정답보다는 학습자가 스스로 쌓아나가는 지식 습득의 과정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맥락 요소를 고려한 정보 활용능력 교육의 중요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강조되고 밝혀진 바 있

다(Grassian and Kaplowitz 2009, 251-253).

이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Heidi Jacobs는 정보 활용능력과 글쓰기의 통합 교육의 필요성을 확신하였고, 마침 글쓰기 교육에서 연구 과정과 정보 활용능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영문과 교수 Dale Jacobs와 협력 작업을 시작하기에 이른다.

3.3.2 원저 대학 작문 프로그램(Jacobs and Jacobs 2009)

Dale Jacobs 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원저 대학의 작문 교육은 글쓰기 프로그램 지원국(Writing Program Administrators: WPA)이라는 학교 행정부서에서 명시한 학습 목표⁸⁾에 따라 운영된다. 학습 목표에는 1학년 작문 수업을 마치고 나서 습득해야 할 내용이 수사학적 지식, 비판적 사고로 글읽기와 글쓰기, 과정, 규칙의 이해, 전자 환경에서 글짓기 등으로 세분되어 나타나 있고 자기 반성능력, 융통성,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 등을 기르고자 하는 정보 활용능력의 학습 목표와 공통되는 측면을 찾을 수 있다.

Dale 교수는 그의 1학년 작문 수업 과정 가운데 한 항목 정도를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 교육에 배당하였고 이를 도서관에 부탁하였다. 이렇게 한두 시간 정도의 도서관 이용 교육이 작문 수업 과정 중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Dale 교수와 Heidi 사서 두 사람은 글쓰기와 정보 활용능력의 이론적·실제적 관련성을 논의하게 되었고 좀 더 구체적인 협력이 이론뿐만 아니라 수업의 실제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

처음에는 한두 시간 정도의 도서관 이용자 교

육이 작문 과목 가운데 포함되는 것으로 시작되었던 연계·협력은 도서관에서 작문 수업 과목을 위한 사서 교육 팀을 만들면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앎의 길(Ways of Knowing)’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이 과목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이 사서들은 대개 작문 수업 시간에 협력 강사로도 활동하면서 학생들이 글쓰기와 관련된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일을 한 학기 동안 도와준다. 이렇게 두 과목을 함께 넘나들면서 사서들은 수업과 과제를 폭 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학생들의 과제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

이러한 협력은 사서들간뿐만 아니라 작문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원생 강사들과 사서간, 사서들과 학부 학생들간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도록 하였고, 이러한 공동체는 대화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내는 대화의 장이 되었다. 이러한 협력 과정을 통해서 사서와 글쓰기 담당 강사가 짝을 이루어 교육이 이루어지며 학생들에게 제시될 과제물도 함께 개발하였다.

Heidi Jacobs는 원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서들과 글쓰기 강사 사이의 연계·협력이 풍성한 결과를 낳았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혼자만으로는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워 보였던 미국대학 및 연구도서관협회의 고등교육 정보 활용능력 표준뿐만 아니라 “정보 활용능력은 평생학습의 핵심이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교육적 목표에 맞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평가하고 사용하고 창조하는 힘을 부

8) WPA 교육 목표 원문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cited 2010.2.3].
 <<http://wpacouncil.org/positions/outcomes.html>>.

여하는 것이 정보 활용능력”(주 4) 참조)이라는 알렉산드리아 선언의 목표에도 근접할 수 있다고 말한다.

원저 대학의 정보 활용능력과 글쓰기 연계·협력 프로그램은 연구와 글쓰기라는 과목을 ‘과정’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유용한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정보 활용능력의 교육에서 연구의 도구를 가르치기보다는 정보 활용능력의 개념과 연구의 과정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한국 교육 현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아 보인다.

4. 한국적 적용 가능성과 대안

4.1 바뀌 쓰기, 초록 쓰기, 서평 쓰기

정보 활용능력의 교육에서 사서와 강사의 연계·협력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국 대학 현실을 감안한다면, 글쓰기 강사와 정보 활용능력 교육 강사의 연계·협력은 급선무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정보 활용능력 교육 강사가 어느 정도 글쓰기 영역을 현재보다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을 경우, 그렇게 해보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현재의 글쓰기 관련 항목에 바뀌 쓰기, 초록 쓰기, 서평 쓰기 연습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해 볼 수 있겠다.

Bronshteyn과 Baladad의 연구에서도 정보 활용능력 교육 강사·사서가 글쓰기 강사의 역할을 어느 정도 맡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그 방법으로 표절을 방지하는 교육과 연계하여 간접 인용의 방식 중 하나인 바뀌 쓰기 연습을

교육 항목 안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Bronshteyn and Baladad 2006). 여기서 바뀌 쓰기 연습이란 ‘패러프레이징(paraphrasing)’ 연습을 말한다. 원전의 의미를 살리면서 자기 나름의 표현으로 문장을 다듬어 운문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데, 인용의 윤리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원저자의 취지를 바르게 전달하는 연습은 읽기 능력과도 관련을 맺는 해볼 만한 시도로 보인다.

초록 작성하기는 문헌정보학 전공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정보 활용능력 교육 강사·사서가 자신 있게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논문이나 출판물을 짧은 분량으로 요약하는 훈련은 발췌, 개요 작성 등과 함께 글쓰기의 기초 훈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겠다. 또한 초록과 색인 데이터베이스 검색방법 등을 함께 교육한다면 더욱 큰 교육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뀌 쓰기, 초록 쓰기 연습이 확대되면 서평에도 도전해 볼 수 있겠다. 미국 중등학교와 대학교 교육 과정에서 교수법상의 한 장르로 정해져 있는 ‘북 리포트(Book Report)’는 지식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논증을 학습하는 데 유익한 텍스트로 잘 알려져 있다(크루제 2009, 208). 일찍이 김상호는 『문헌비평론』을 통해 문헌에 대한 사서의 올바른 비평 능력을 강조한 바 있다(김상호 2003). 다만 비판적 사고의 신장과 직접 관련이 되어 정보 활용능력 교육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다양한 전공의 학생, 다양한 학년·수준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한 수업에서는 비평 대상 책의 선정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즉 다양한 전공 분야에 걸쳐 다양한 수준의 책을 여러 권

선정해서 제시한 다음 학생들 스스로 선택하여 서평을 쓰게 하는 방법을 실시해 볼 수 있겠다.

4.2 동양 고전 정보 활용

방법론의 차이와 글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결국 글쓰기는 인용의 문제가 반 이상을 차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인용 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주석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인용의 '형식'도 중요하겠지만, 수사학(修辭學)에 바탕을 둔 인용의 '내용', 바로 자신의 논지에 알맞은 다른 저자들의 좋은 문장들을 끌어다가 적절하게 배치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글쓰기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결국 글쓰기는 글읽기와 필연적으로 함께 갈 수밖에 없는바, 많은 읽기가 쓰기의 자료가 됨은 물론이다. 여기에서 글쓰기 자료의 언어 문제가 개입한다.

서양에서는 적어도 2천 50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수사학의 전통(전성기 2007, 129; 박성창 2000, 122)에 따라 글쓰기 교육에서 수사학적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한다. 학술적 논문을 포함하는 많은 서양의 저작에서 라틴어를 포함하는 고전 작품의 인용은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글머리에 전체 내용을 이끄는 제사(題詞)는 대개 고전 문학, 라틴어 경구, 성경의 한 구절 등이다. 그만큼 자신의 문화유산에 대한 끊임없는 참조와 독서가 수준 높은 글쓰기를 만들어 낸다고 하겠다.

글쓰기 문제가 언어·역사·사회적 환경이 필연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면,

한국의 정보 활용능력 교육에서 한문 자료를 포함하는 동양의 고전 자료의 접근에 대한 상대적인 무시 경향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글쓰기는 한자 문화권에서 이루어진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어로 작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수사학 전통을 찾아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수사학을 '잘 표현하고 논증하여 상대를 설득하고 연설하는 기술' 정도로 이해한다면 이는 충분히 동양의 고전에서 넘쳐나고도 남는다.

기원전 770년경부터 시작되었다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이래 제자백가(諸子百家)가 등장하여 수없이 많은 논변을 통해 권력가를 설득하며 사상을 논하였다. 그 이후 역사를 통해 축적된 각 시대의 심오한 문장과 수사(修辭)들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한자 문화권에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훌륭한 글쓰기의 바탕 자료일 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운 동양의 문화유산이다.

이러한 고전의 직접 독해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고전의 국역 작업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고전종합DB'⁹⁾를 포함하여 최근에는 고전에 대한 인터넷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웹 자원도 꽤 많아졌다.

보통 정보 활용능력 교육에서 많은 정보원을 소개한다. 많은 인터넷 정보 자원을 안내하며, 심지어 순전히 영어로만 된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하게 소개하면서 한문으로 된 고전을

9)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이 사이트 주소이다. 그 밖의 많은 참고 자원이 심경호의 『한학입문』의 부록에 자세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

포함한 한국의 전통 자료나 정보에 대한 안내는 없다거나 부족하다면 그것은 큰 모순이다.

창의성의 발현은 천재의 탄생 또는 고전에 대한 대담한 해석 두 가지 말고는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 한다.¹⁰⁾ 우리 고전을 포함한 동양의 무궁무진한 자원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일은 정보 활용능력 교육과 글쓰기의 연계·협력, 나아가서 한국의 정보 활용능력 교육의 항목 설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다.

4.3 소통을 위한, 소통에 의한, 소통의 정보 활용능력

이 논문을 작성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소통에 대한 희망이었다. ‘학문적 글쓰기란 연구자들 사이의 갈등이나 불일치를 해결하여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는 것(전성기 2007, 194)’이라는 주장에 크게 공감한바, 답이 정해져 있는 토의나 논의 속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는 서로 다른 의견의 개진, 그리고 성숙한 합의를 통해 다양한 정보 활용능력에 대한 담론을 이끌어내 보고 싶었다.

정보 활용능력과 글쓰기 교육의 연계·협력은 결국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글쓰기 강사나 정보 활용능력 교육 강사·사서 사이의 소통, 다른 대학 구성원들 사이의 소통, 이러한 소통이 전제될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나아가서 대학 행정당국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면 정보 활용능력 교육도 글쓰기 교양 교육과 함께 대학 전체를 아우르는 교양 필수 과목

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될 날이 머지않을 것이다.

이렇게 학계와 도서관 현장이 소통하고, 학문과 다른 학문이 소통하고, 학생과 강사, 교수가 소통하는 장을 정보 활용능력 교육이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소통을 통한 논의가 이루어지다 보면 교육 항목 또한 보다 내실 있고 탄실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 활용능력 교육은 문헌정보학과의 개설하는 대표 교양과목으로, 다른 학문의 전공자에게 문헌정보학의 인상을 결정지을 수 있는 소통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과목이다. 전공 영역의 특수성 측면을 대학의 일반적 교양 교육 측면보다 강조해 온 문헌정보학계에서 정보 활용능력에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5. 나오기

이 연구는 정보 활용능력 교육 항목 설정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루어졌다. 우선 정보 활용능력이 가진 모호성과 다양한 개념을 통해 정보 활용능력 교육 또한 일률적인 지침이나 표준에 의해서는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밝혔다. 또 다양한 정보 활용능력 교육 항목 가운데 글쓰기와의 연관성을 비중 있게 다룬 이론을 살펴 본 뒤, 실제로 글쓰기 교육을 정보 활용능력 교육과 연계하여 협력적으로 실행한 미국의 유타 대학과 캐나다의 윈저 대학의 사례 연구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10) 김지하가 2008년 광화문문화포럼에서 한 말 중에 인용. 출처는 『동아일보』 2008. 문화가 살아야 나라수준 높아진다. 2008.1.10.

의 상황에서 정보 활용능력 교육과 글쓰기 교육의 연계 또는 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 참고 자료이자 이론적 바탕이 된 “Writing Information Literacy”의 저자 Rolf Norgarrd는 글쓰기 강사에 앞서 수사학자라고 한다. 수사학자의 정보 활용능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준 이 논문으로부터 글쓰기 담당 교육자들이 정보 활용능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비단 미국의 상황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글쓰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분야와 소통도 필요할 수 있다. 통섭(統攝)을 지향하

는 오늘날 지식 세계에서 다학문적인 소통이 정보 활용능력 교육 항목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소통의 시도 가운데 하나를 정리해 본 것일 뿐이며 절대적인 지침을 제시하고자 함이 아니다. 각 대학 도서관의 현장과 교육 환경에 적합한 상황별 교육 과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것이 보다 실질적인 정보 활용능력 교육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Todd가 지적한 대로, 연구를 바탕으로(research-based) 타당성을 인정받은 정보 활용능력 모델을 교육의 실체에 적용하는 일이 요구된다(Todd 2010, 146).

참 고 문 헌

- 강혜영. 2002. 정보이용능력 교육 프로그램의 비교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1): 297-320.
- 고영만. 2001. 정보교육의 문화적 담론.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3): 79-92.
- 고영만. 2010. 『정보문해론』, 개정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김상호. 2003. 『문헌비평론』. 대구: 태일사.
- 김성은, 이명희. 2006. 대학생의 정보활용능력 교수학습모형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2): 177-200.
- 박성창. 2000. 『수사학』. 문지스펙트럼 지식의 초점, 6-003. 서울: 문학과지성사.
- 백영균 외. 2010. 『유비쿼터스 시대의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3판. 서울: 학지사.
- 심경호. 2007. 『한학입문』, 신판. 서울: 황소자리.
- 유소영. 1997. 정보교과목과 타 교과목의 통합적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4): 53-81.
- 이상렬. 2010. 『정보조사와 글쓰기』. 서울: 에듀컨텐츠.
- 이지현 외. 2005. 『教育學의 理解』. 서울: 학지사.
- 이창수, 김신영. 2003. 정보이용능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대학구성원간 협력방안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1(1): 231-250.
- 이현실. 2004. 델파이 조사를 이용한 정보활용능력 교육 항목 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1): 303-322.

- 이현실, 최상기. 2005.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 인식도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1): 91-112.
- 장덕현, 최고운. 2008. 대학도서관 정보활용교육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1): 37-60.
- 진성기. 2007. 『인문학의 수사학적 탐구: 언어학·번역학·수사학』.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진혜영, 황인영. 2003. 국내 대학의 정보이용능력 교양교육의 표준지침 수용에 관한 연구. 『제10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0: 284-294.
- 최상희, 박명규. 2005. 정보활용 교양교육에 대한 수강생의 수용 양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3): 121-137.
- 최정임, 장경원. 2010. 『PBL로 수업하기』. 서울: 학지사.
- 크루제, 오토. 2009. 『공포를 날려버리는 학술적 글쓰기 방법』. 김종영 옮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쿨싸우, 캐롤. 2000. 『정보탐색과정론』. 김효정, 이병기 공역. 첨단정보총서, 5. 군포: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 포스너, 리처드 엘런. 2009. 『표절의 문화와 글쓰기의 윤리』. 정해룡 옮김. 부산: 산지니.
- ALA. 1989. Final Report. [cited 2011.2.9]. <www.ala.org/ala/mgrps/divs/acrl/publications/whitepapers/presidential.cfm>.
- Bowles-Terry, M., E. Davis and W. Holliday. 2010. 'Writing Information Literacy' Revisited: Application of Theory to Practice in the Classroom.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49(3): 225-230.
- Bronshteyn, K. and R. Baladad. 2006. Librarians as Writing Instructors: Using Paraphrasing Exercises to Teach Beginning Information Literacy Students.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2(5): 533-536.
- Elmborg, J.K. 2003. Information Literacy and Writing across the Curriculum: Sharing the vision. *Reference Services Review*, 31(1): 68-80.
- Grassian, E. S. and J. R. Kaplowitz. 2009.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2nd ed. New York: Neal-Schuman.
- Hunt, Russell. 2002. Four Reasons to be Happy about Internet Plagiarism. *Teaching Perspectives*, 5(1-5).
- Jacobs, H. L. M. 2008. Information Literacy and Reflective Pedagogical Praxis.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4(3): 256-262.
- Jacobs, H. L. M. and D. Jacobs. 2009. Transforming the One-Shot Library Session into Pedagogical Collaboration: Information Literacy and the English Composition Class.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49(1): 72-82.
- Kerr, P. 2010. *Conceptions and practice of information literacy in academic libraries: Espoused theories-in-use*. Ph. D. Dis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 Kuhlthau, C. C. 2004. *Seeking meaning: a process approach to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2nd ed. Westport, CT: Libraries Unlimited.
- Norgaard, Rolf. 2003. Writing Information Literacy: Contribution to a concept.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43(2): 124-130.
- Norgaard, Rolf. 2004. Writing Information Literacy in the Classroom: Pedagogical Enactments and Implications.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43(3): 220-226.
- Pawley, C. 2003. Information Literacy: A Contradictory Coupling. *Library Quarterly*, 73(4): 422-452.
- Purdue, J. 2003. Stories, Not Information: Transforming Information Literacy. *Portal: Libraries and the Academy*, 3(4): 653-662.
- Shapiro, J. J., S. K. Hughes. 1996. Information Literacy as a Liberal Art. *Educom Review*, 31(2). [cited 2011.1.14]. <<http://net.educause.edu/apps/er/review/reviewArticles/31231.html>>.
- Todd, R. 2010. From Information to Knowledge: The Information Literacy Conundrum.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4): 131-153.